

중금리 시장의 도입이 가계의 상환부담 및 연체율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분석*

송 준 혁**

본 연구에서는 중금리 시장의 형성이 여신시장의 공백을 보완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완전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 NICE평가정보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중금리 시장의 현황을 분석한 뒤, 이의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원리금상환부담(DSR) 및 연체율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신용대출 잔액은 2015년 말 현재 560.9조 원 규모로 2010년 이후 연평균 6.2% 증가하였는데, 동 기간 중 가계신용 증가율이 7.4%인 점을 감안하면 신용대출의 증가세는 그리 높다고 하기는 어렵다. 특히, 신용등급별로 대출 규모 및 비중을 살펴보면 상위 등급인 1~4등급에 대한 대출 규모 및 비중은 증가한 반면 중·저 신용등급의 대출 잔액 및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용등급 간 금리에서는 대개 한 등급 간 2%p 내외의 금리 격차를 보이고 있으나 중신용등급에서 금리 차이가 급격히 확대되는 단절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모형을 이용하여 중금리 도입이 DSR과 연체 여부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경상소득은 DSR 및 연체 확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다중채무는 연체 확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금리는 DSR 및 연체 확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실효금리의 1%p 하락은 DSR의 측면에서는 경상소득의 547만 원, 연체 확률 측면에서는 경상소득의 127만 원의 증가와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핵심주제어: 중금리 시장, 원리금상환부담, 연체율, 가계신용, 신용등급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G21, G23, G24

* 본 논문은 한국은행에서 수행한 2016년 외부 수탁과제를 바탕으로 이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자 개인 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힌다. 또한 본 연구는 2016년 한국외대 교내학술연구비의 재정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을 밝힌다.

** 한국외대 상경대학 경제학과 부교수, 전화: (02) 2173-3107, E-mail: jhsong@hufs.ac.kr
논문투고일: 2016. 6. 21 수정일: 2016. 7. 28 게재확정일: 2016. 11. 20

I. 서론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은 2000년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상당히 빠른 증가세를 보여 왔다. 이에 반해 가계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이용 제한 및 체계적인 신용평가 방법의 부족 등으로 인해 그 증가세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신용대출이 은행이나 보험사가 아닌 여신전문기구,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 등과 같은 금융중개기관에 의해 주로 공급됨에 따라 과도한 금리 수준 및 불법 채권추심 문제는 가계대출의 고질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신용대출 공급의 총량적인 문제와 더불어 금리가 등급별 신용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중간 수준의 신용리스크를 가진 금융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없는 중금리 시장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담보 제공 여부에 따라 금리가 확연히 달라지는 금리 절벽 현상은 우리나라 신용대출 시장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국내 금융회사들은 만성적인 과잉 자금수요로 인해 생존경쟁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중신용자를 유인하기 위한 혁신 노력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들 신용등급 구간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심각한 것 역시 중금리 대출시장의 부재의 한 축으로 작용하였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은 새로운 수익원 발굴에 집중해 왔다. 최근 빅데이터 처리와 같은 핀테크(fintech)가 크게 발전하는 가운데 P2P대출, 크라우드펀딩, 인터넷전문은행 등이 전통적인 금융의 대안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그간 신용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어려웠던 중신용자들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제고됨에 따라 이들을 보다 잘 판별하고 신용을 평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카카오뱅크와 K뱅크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¹⁾ 예비인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들 은행들이 타겟으로 삼고 있는 중금리 대출시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고신용자에 대한 은행 중심의 저금리 대출과 중·저 신용자²⁾들에 대한 저

1) 2015년 11월 금융위원회는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카카오, 한국투자금융지주, KB국민은행, SGI보증보험, 이베이, 텐센트 등 11개사)과 K뱅크 컨소시엄(KT, 우리은행, 한화생명보험, GS리테일, 다날, 알리바바 등 21개사)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승인하였으며, 본인가는 2016년 중에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 일반적으로 중·저 신용자는 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인 계층을 의미하고 있으나 중신용자와 저신용자의 신용등급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저신용자를

축은행·대부업계 중심의 고금리 대출에 따라 신용대출이 양극화되고 있다. 따라서 신용등급이 4~7등급의 중신용 계층을 대상으로 한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함으로써 신용대출 금리의 단절성을 극복하고 금리의 가격 기능을 제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인되면서, 전통적인 은행 및 저축은행 등에서 경쟁적으로 중금리 대출상품이 도입되고 있다. 한편, 중금리 대출시장은 서민금융 접근성의 확대뿐만 아니라 통화정책의 측면에서도 만기별·신용등급별 금리 구조를 형성할 수 있어 이자율 경로를 통한 통화정책 조정의 파급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통한 중금리 시장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이 전통적인 은행과 다른 어떤 차별성과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확실히 해결된 것 같지는 않다. 점포운영비의 절감, 빅데이터를 이용한 고객맞춤형 서비스,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금융의 경쟁력 향상 및 부가가치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장밋빛 기대는 있지만, 구체적인 수익모델이나 경제적 효과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만약 인터넷전문은행이 지급·결제와 같이 기존의 은행 및 금융기관이 제공해 왔던 서비스를 공급할 경우, 이는 전통적인 은행의 고객이 인터넷전문은행의 고객으로 전환하면서 전체적인 고객의 수는 변하지 않게 되는 영합게임(zero sum game)이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이 주목을 받은 이유는 신용공급에서 은행 위주의 저금리 시장과 저축은행, 대부업 위주의 고금리 시장을 연결하는 중금리 시장 형성에 촉매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연구의 경우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금리 시장에 대한 연구는 발견하기 어려웠으며, 국내 연구 역시 중금리 시장에 대한 분석은 거의 찾기 어려웠다. 다만 유사한 연구로는 김현욱·박창균(2003)에서 인터넷뱅킹의 도입에 따른 금리변화가 은행대출 또는 수익에 미친 효과를 살펴보았는데, 인터넷뱅킹의 도입으로 은행의 운영비용 감소효과는 있으나 수익성을 증가시키지는 못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이들은 은행들이 인터넷뱅킹 서비스 소비자에게 우대금리 및 수수료 감면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수익성 증가가 미미하였지만, 인터넷뱅킹이 사회적 전체 후생을 증대시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김영도·임진(2013)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주택가격 하락 충격에 따른 금

신용만으로 제도권 금융에 접근하기 어려운 신용등급인 8~10등급의 계층으로 분류하고 중신용자는 4~7등급의 계층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융권 전체의 손실액을 추산한 바 있는데, 분석 결과 대출금리가 1%p 상승할 경우 원리금 상환 비율로 구분된 잠재적 위험가구가 16만 3,000가구 증가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배영목(2015)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소득분위별 가계부채의 세부 구성을 분석한 결과, 차입가구 비율은 최저소득층의 경우 27% 수준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이 금융시장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경상소득 대비 연상환액, 경상소득 대비 금융부채, 총자산 대비 총부채를 측정된 결과, 이들 비율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상환불능 위험가구 비율도 역시 저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남을 보였다.

중금리 시장 활성화의 촉매 역할을 담당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 안세룡(2015)은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을 4%로 제한하는 현행 은행법 하에서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대한 유인이 낮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국내에서는 비대면 실명확인이 금지되어 있는 바,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과 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인증방식의 도입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주장진 외(2016)는 해외의 핀테크 산업과 비교하여 국내 핀테크 산업이 초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미비한 정책과 제도에 있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포지티브 시스템인 국내 금융규제는 융합적인 시도와 창조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현재의 금융보안 시스템이 특정 보안모델 위주로 운영되어 다양한 유저환경에 대응하지 못하고 스파이웨어나 악성코드 침투를 용이하게 하는 점이 있으므로, 기술중립성을 만족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³⁾

한편, 중금리 시장의 도입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저소득 소액대출 시장에 대한 분석으로, 조훈·강정미(2013)는 대부업체의 원가 자료를 통해 대손비용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어 제도권 금융기관들의 소액대출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수진(2016)은 금융기관의 신용등급별 손익분기점 분석을 통해 대부업 금리상한 조정에 따른 대부시장 수요자 구축 규모를 추정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대부업법 개정으로 금리상한이 34.9%에서

3)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한 해외 연구로 DeYoung(2005)은 1997년에서 2001년에 창업한 미국 내 인터넷전문은행을 대상으로 수익성 분석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은 초기의 대규모 설비투자에 따라 높은 고정비와 낮은 변동비 구조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수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나 이들 은행들은 이를 충족할 정도의 시장을 아직 확보하지 못해 전통적인 은행에 비해 수익성이 낮게 분석되었다고 보고하였다. Sullivan and Wang(2013)에서는 인터넷뱅킹 기술 도입과 은행 규모 간의 상호작용으로 초기에는 대형은행이 주도적으로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은행 규모의 분포곡선의 모양이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양(+)의 왜도를,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기술이 소형은행으로 확산됨에 따라 왜도가 감소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27.9%로 인하될 경우 약 34만 명에서 74만 명의 저신용자가 대부시장에서 구축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본고에서는 먼저 NICE평가정보 및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업권별·신용등급별(또는 소득분위별) 신용대출 시장의 특징을 분석하고, 중금리 시장의 도입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NICE평가정보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금융권역별·신용등급별 시장의 현황 및 추이를 점검함으로써 중금리 시장 도입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중신용 그룹의 규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비록 자료의 한계로 인해 보다 엄밀한 실증분석은 어려우나 시장의 세분화를 통해 우리나라 신용대출 시장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신용대출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중금리 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금리인하 효과는 마이크로데이터인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원리금상환부담 및 연체율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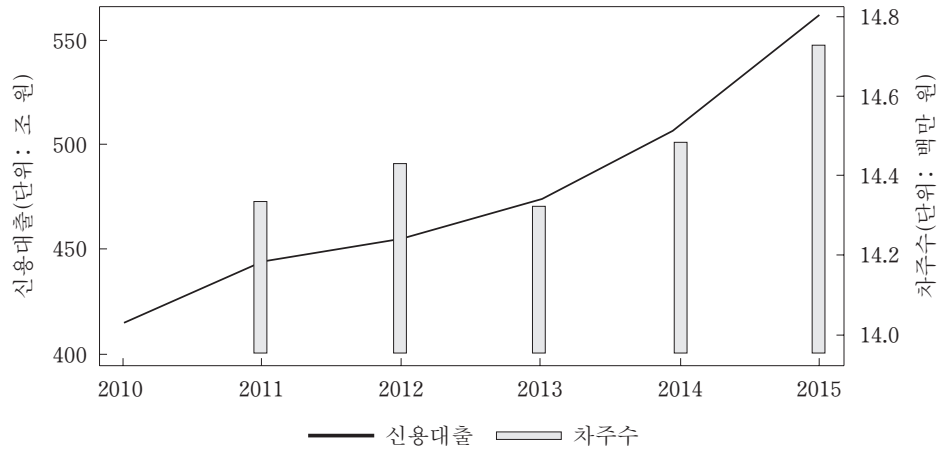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절에서는 NICE평가정보 자료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신용대출 시장의 현황과 특성을 점검해 본다. 제Ⅲ절에서는 중금리 시장 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해 본다. 제Ⅳ절에서는 이제까지의 논의를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우리나라 신용대출 시장의 현황

1. 신용대출 시장 구조

신용등급별 신용대출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NICE평가정보가 한국은행에 제공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분석기간은 2010년에서 2015년까지 연간 자료이다. 분석 자료는 원자료가 아니라 NICE평가정보에서 이미 일차적으로 가공해서 한국은행에 제공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음을 먼저 지적해 두고자 한다.

〈그림 1〉은 신용대출 차주 및 대출 규모를 제시한 그림이다. 전체 신용대출은 2010년 말 414조 5,067억 원에서 2015년 말 560조 9,266억 원으로 연평균 6.2% 정도 증가하였다. 이는 해당 기간 중 가계신용 증가율이 7.4%였다는 점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세에 해당한다. 한편,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수(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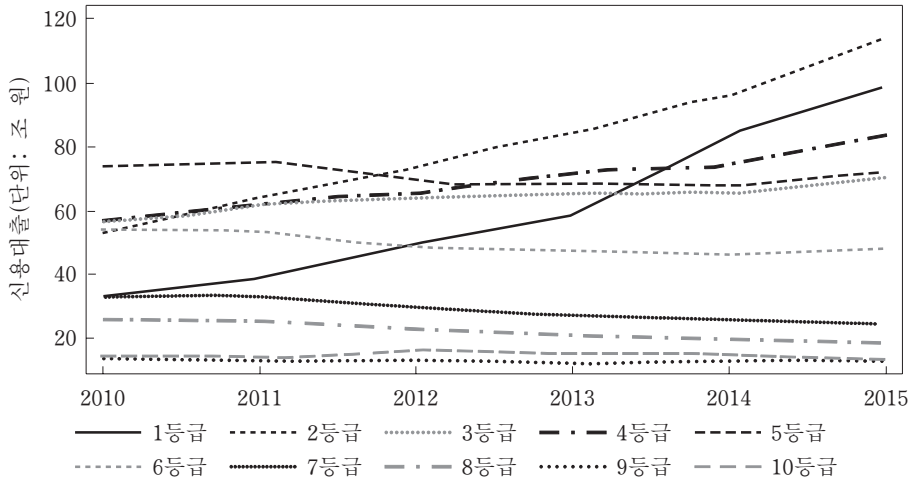
자료: NICE평가정보.

〈그림 1〉 신용대출 추이

복 포함)는 동 기간 중 1,395만 2,000명에서 1,473만 7,000명으로 연평균 1.1% 증가하는 모습을 시현하였다. 따라서 5.1% 정도의 신용대출 증가는 차주수가 아닌 대출수요의 증대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2013년 중에는 차주수가 감소하였으나 신용대출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전체 대출 규모는 차주수가 감소할 경우 1인당 대출 규모를 증액함으로써 나름의 증가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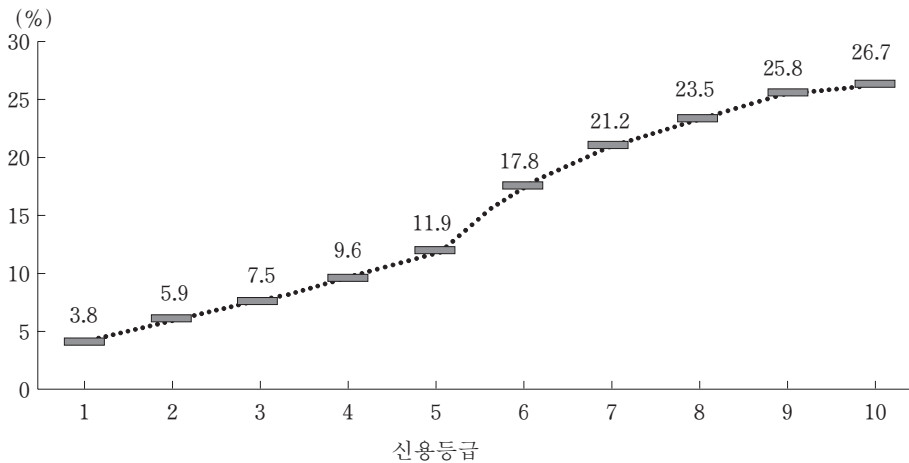
한편, 〈그림 2〉를 통해 신용등급별로 대출 규모 및 비중을 살펴보면, 총량적인 대출 규모는 증가하는 가운데 1~4등급에 대한 대출 규모는 증가한 반면 나머지 등급에 대한 대출 규모는 감소하였음을 관찰할 수 있다. 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이들 상위 등급에서의 대출 규모가 여타 등급보다 더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계신용 상위 등급에 대한 편중은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대출 비중 측면을 살펴보면 상위 1~3등급에 대한 대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이들 고신용자들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말에는 50%에 육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신용자에 해당하는 4~7등급의 경우에는 4~5등급의 비중에는 큰 차이가 없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6~7등급에 대한 대출 비중은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저신용자인 8~10등급의 경우 8등급에 대한 비중이 감소하는 가운데 9~10등급의 경우 이전과 유사한 수준의 미미한 대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

4) 업권별 신용대출 규모 및 비중도 분석해 보았으나 지면상의 문제로 본문에서는 수록하지



자료: NICE평가정보.

〈그림 2〉 신용등급별 신용대출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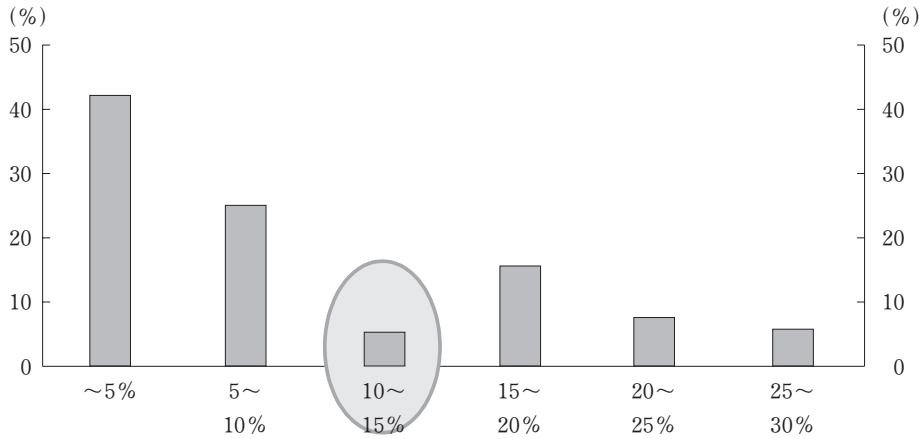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5년 12월.

〈그림 3〉 신용등급별 가계신용대출 평균 금리

〈그림 3〉에서는 신용등급별 가계 신용대출에 대해 전체 업권의 평균 금리가 제시되어 있다. 등급 간 대략 2%p 수준의 차이를 보이다가 5등급과 6등급 간의 금리 격차가 5.9%p로 확대되는 것이 관찰되는데, 이는 6등급보다 낮은 신용등급자들이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은행, 보험, 상호금융으로부터의 대출이 제한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여신전문금융,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으로

않았다. 여기에 관심 있는 독자는 저자에게 개별적으로 요청하기 바란다.



자료: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5년 12월.

〈그림 4〉 금리구간별 가계신용대출 분포

대출 통로가 전이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그림 4〉에서는 금리구간별 신용대출 규모를 제시하였는데, 10~15% 금리 구간의 신용대출 비중은 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중금리 구간에서의 대출 규모가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저금리와 고금리로 양분된 신용대출 시장에서 기존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 및 담보가 부족한 중금리 시장보다는 자신들이 보다 편안하게 생각하는 저신용자나 고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에 주력하는 가운데, 중신용자들에 대한 대출을 사업모델로 삼는 금융기관의 출현이 없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가계 신용대출 분포는 현재의 시장환경에서 수익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내생적으로 도출된 분포이므로 중금리 영역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금리에서 대출이 발생하더라도 수익성이 보장될 수 있는 시장 여건 및 제도를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2. 업권별·신용등급별 신용대출 시장 현황

(1) 전체 신용등급

〈표 1〉은 신용대출 비중을 업권별로 분석하여 정리한 표이다. 은행의 경우 전체 대출 중 73.3%가 고신용자들에게 대출되고 있다. 이에 반해 여신전문금융, 보험, 신용협동기구의 업권별 대출 중 고신용자에게 공급된 비율은 30% 수

〈표 1〉 업권별 신용대출 비중

(단위: %)

신용등급	은행	여신전문금융	보험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대부업
1등급	36.7	5.0	0.6	0.5	1.6	0.0
2등급	19.8	14.5	19.4	0.3	26.0	0.0
3등급	16.8	10.6	10.0	0.5	9.7	0.0
4등급	8.4	16.7	22.0	3.8	24.4	0.2
5등급	8.3	19.6	20.0	20.9	16.1	3.4
6등급	4.3	15.0	13.3	29.4	9.1	20.3
7등급	2.2	7.2	6.0	16.4	4.3	24.3
8등급	1.1	3.6	3.3	9.9	4.7	19.1
9등급	1.3	3.5	2.7	11.9	1.8	18.9
10등급	1.2	4.4	2.8	6.3	2.2	13.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NICE평가정보.

준이며 저축은행의 경우 동 비율은 1.3%이고 대부업의 고신용자 대출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신용자 대출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해당 업권의 총대출 중 70.5%를 공급하고 있으며 여신금융, 보험, 신탁 및 대부업에서도 동 비중은 각각 58.5%, 61.3%, 53.9% 및 48.2%를 보이며 중신용자 시장에서 상당한 경합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8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대출의 경우 대부업이 해당 업권의 대출에서 51.8%를, 그 다음으로는 저축은행이 28.1%를 공급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은행은 고신용등급자를 주고객으로 하여 영업을 수행하고 있고, 중신용자 대출에서는 상호금융, 보험, 신용협동기구, 저축은행, 대부업이 경합하는 가운데 저신용 대출에서는 저축은행, 대부업체가 이들의 대출 여력 중 상당 부분을 집중하는 것을 일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신용등급별로 금융접근성 및 대출 규모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업권이 아닌 신용등급별로 대출 규모를 다시 구성하여 정리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고신용등급인 1~3등급에서는 은행은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 반면 신용협동기구는 1, 3등급을 제외한 모든 신용등급별 대출에서 상당한 비중을 보이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의 경우에는 중·저 신용등급에서 20% 내외 수준의 비중

130 중금리 시장의 도입이 가계의 상환부담 및 연체율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분석

〈표 2〉 신용등급별 신용대출 비중

(단위: %)

신용등급	은행	여신전문금융	보험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대부업	합계
1등급	93.1	3.6	0.1	0.1	3.1	0.0	100.0
2등급	44.6	9.4	1.9	0.0	44.1	0.0	100.0
3등급	60.8	11.0	1.6	0.1	26.5	0.0	100.0
4등급	25.6	14.6	2.9	0.8	56.1	0.0	100.0
5등급	29.3	19.8	3.1	4.9	42.9	0.6	100.0
6등급	23.8	23.9	3.2	10.8	38.3	5.4	100.0
7등급	24.8	23.3	2.9	12.3	36.6	13.0	100.0
8등급	16.8	15.9	2.2	10.1	55.0	14.0	100.0
9등급	28.1	21.8	2.6	17.2	30.2	19.7	100.0
10등급	26.2	27.0	2.6	8.8	35.4	13.9	100.0

자료: NICE평가정보.

〈표 3〉 신용대출 금리구간별 대출금액 비중

(단위: %)

구분	은행	상호금융	보험	카드사	캐피탈	저축은행	소비자금융 (대부업 등)
5% 미만	72.7	29.3	15.2	-	-	-	-
5~10%	24.6	70.6	56.2	13.3	2.4	3.5	-
10~15%	2.7	0.1	26.5	20.0	9.1	6.9	-
15~20%	-	-	2.1	41.0	25.6	2.5	0.1
20~25%	-	-	-	13.5	35.0	18.4	0.3
25~30%	-	-	-	12.2	27.9	47.5	1.96
30% 이상	-	-	-	-	-	11.2	97.7

자료: 각 협회 및 중앙회 공시 자료, NICE평가정보.

을 유지하고 있으며 저축은행은 주로 6등급 이하의 대출에서 10% 수준의 신용공여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대부업의 경우에는 7등급 이하의 모든 등급에서 오히려 저축은행을 상회하는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는 중신용자를 주고객으로 하는 중금리 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신용협동기구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향후 중금리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 상대

적으로 가장 방어적이며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3〉에서는 금리구간별로 업권별 대출 비중이 제시되어 있는데, 은행과 상호금융의 경우 대출금리가 중금리 구간인 10~15%를 하회하고 있는 반면 카드사, 캐피탈 및 저축은행의 신용대출의 66.7%, 88.5% 및 89.6%가 중금리 구간을 상회하는 금리 구간(15% 이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신용자들 대상으로 영업 전략을 구상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은행·저축은행의 중금리 상품들과 대응해서 경쟁 측면에서 가장 큰 도전과 압박을 받는 업권은 여신금융기구와 저축은행이 될 것이며, 이중 중신용등급자에 대한 대출 비중이 가장 높은 카드사가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 중신용자

다음 〈표 4〉는 중신용등급 전체 및 업권별 차주수를 정리한 것이다. 중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차주수(중복 포함)는 2010년 750만 9,000명에서 2015년에는 646만 8,000명으로 연평균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등급에 해당하는 차주수가 NICE평가정보 자료에 포함된 전체 차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9%로 이는 2010년의 53.8%에서 9.9%p나 감소한 수준이다. 차주수의 감소는 대부분 은행과 신용협동기구에서 발생하였으며 상호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는 각각 해당 기간 중 연평균 11.1% 및 6.6%의 증가율을 시현하였다.

〈표 5〉는 중금리 대출시장이 주요 목표고객으로 삼고 있는 중신용자에 대한 업권별 신용대출 잔액을 살펴본 것이다. 먼저 신용대출의 총량을 보면 중신용자에 대한 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52.3%에서 2015년에는 40.9% 수준으로 이 기간 중 11.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호저축은행, 보험 및 대부업에서는 중신용자 그룹에 대한 신용대출이 연평균 10%를 상회하는 수준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데 반해, 은행의 경우에는 분석기간 중 매년 평균적으로 5.8%씩 중신용등급자들에 대한 신용대출을 축소하여 왔음이 목격된다. 은행의 이러한 행태는 2007년 이후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정책으로 인해 은행대출이 비은행금융기관으로 전환된 데다⁵⁾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은행에 대한 자본금 규제에 대한 대응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구자현, 2014). 비록 비은행금융기관의 신용 공여가 늘어났다고는 하나 은행의 신용대출 감소의 여파로 중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의 총규모는 연평균 1.1% 증가에 그쳐 전체 신용대출 증가율인 6.2%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에 그쳤다.

5) 자세한 내용은 김우영·김현정·김기호(2009) 참조하기 바란다.

〈표 4〉 업권별 중신용자¹⁾ 신용대출 차주수²⁾

(단위: 천 명,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증가율
차 주 수	전체	7,509	7,598	7,188	7,033	6,619	6,468	-2.9
	(총차주수 대비 비중)	(53.8)	(53.0)	(49.8)	(49.1)	(45.7)	(43.9)	-
	은행	3,589	3,478	3,325	3,122	2,870	2,794	-4.9
	여신전문금융 ³⁾	3,875	4,076	3,921	4,001	3,893	3,957	0.4
	보험	463	532	565	601	589	606	5.5
	상호저축은행	480	636	652	664	725	811	11.1
	신용협동기구	2,133	2,122	1,861	1,772	1,675	1,649	-5.0
	대부업	519	648	646	650	688	713	6.6
증 감 률	전체	-	1.2	-5.4	-2.1	-5.9	-2.3	-2.9
	은행	-	-3.1	-4.4	-6.1	-8.1	-2.7	-4.9
	여신전문금융 ³⁾	-	5.2	-3.8	2.0	-2.7	1.6	0.4
	보험	-	14.8	6.3	6.3	-1.9	2.9	5.5
	상호저축은행	-	32.5	2.5	1.9	9.1	11.9	11.1
	신용협동기구	-	-0.5	-12.3	-4.8	-5.5	-1.5	-5.0
	대부업	-	24.8	-0.3	0.7	5.9	3.6	6.6

주: 1) 신용등급 4~7등급.

2) 중복 대출 포함.

3) 여신전문금융은 할부금융사, 신용카드사, 리스 및 신기술사, 신용협동기구는 새마을금고, 신협, 농·수·축협 단위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음.

자료: NICE평가정보.

대출 총액에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은행에서 여타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진 대출 구성의 변화는, 중신용자 대출의 금리 및 신용 리스크의 상승을 야기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최근 들어 중신용자 대출의 질은 이전에 비해 악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표 6〉은 연도별 중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 증감액을 정리한 것이다. 2012년과 2014년 두 해의 경우 중신용자들에 대한 신용대출의 신규 공급이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14년의 경우 신규 공급의 감소가 은행에 의해 주도된 반면 2012년에는 은행뿐만 아니라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및 대부업이 모두 동 감소된 점이 특징적이다.

〈표 5〉 업권별 중신용자 신용대출 규모

(단위: 조 원,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증가율
잔액	전체	216.9	225.7	212.7	216.2	214.3	229.6	1.1
	(총대출 대비 비중)	(52.3)	(50.8)	(46.7)	(45.6)	(42.1)	(40.9)	-
	은행	77.6	76.7	72.0	67.7	60.4	57.6	-5.8
	여신전문금융	30.1	33.2	33.3	36.9	38.4	41.7	6.7
	보험	3.4	4.1	4.5	5.6	5.9	6.6	14.5
	상호저축은행	7.1	8.6	7.2	7.5	8.6	11.6	10.4
	신용협동기구	90.8	93.9	87.1	89.0	91.1	101.1	2.2
	대부업	3.0	3.6	3.6	4.4	4.9	5.7	13.6
증감률	전체	-	4.1	-5.8	1.6	-0.9	7.2	1.1
	은행	-	-1.2	-6.1	-6.0	-10.7	-4.6	-5.8
	여신전문금융	-	10.3	0.1	11.0	4.2	8.4	6.7
	보험	-	22.4	8.5	25.8	4.1	13.1	14.5
	상호저축은행	-	21.3	-16.1	3.8	15.9	34.0	10.4
	신용협동기구	-	3.4	-7.2	2.2	2.3	11.0	2.2
	대부업	-	20.1	-1.4	22.6	11.2	17.2	13.6

자료: NICE평가정보.

〈표 6〉 업권별 중신용등급 신용대출 증감액

(단위: 10억 원)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8,824	-13,023	3,485	-1,903	15,331
은행	-922	-4,708	-4,290	-7,268	-2,771
여신전문금융	3,115	18	3,649	1,544	3,237
보험	755	352	1,155	230	768
상호저축은행	1,503	-1,380	273	1,187	2,936
신용협동기구	3,111	-6,723	1,906	2,028	10,060
대부업	606	-51	805	492	836

자료: NICE평가정보.

〈표 7 업권별 중신용자 대출 1건당 신용대출 금액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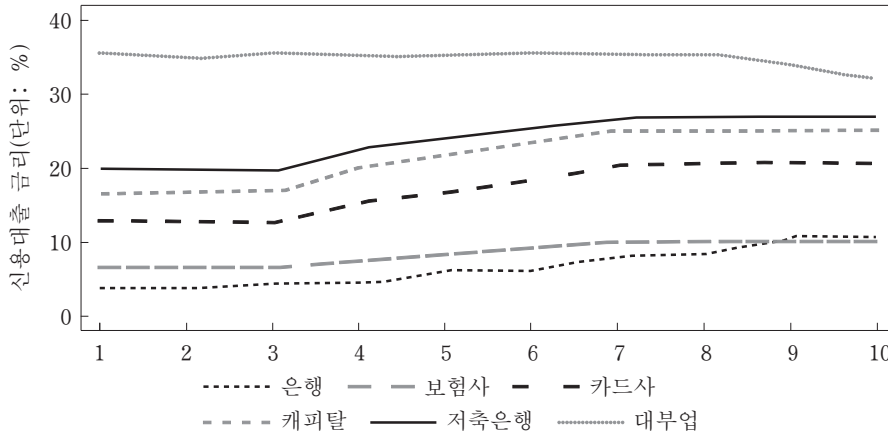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총대출 평균	16.5 (29.7)	17.0 (31.0)	17.5 (31.5)	18.7 (33.1)	19.8 (35.1)	21.0 (38.1)
전체	15.3 (28.9)	15.4 (29.7)	15.3 (29.6)	15.8 (30.7)	16.1 (32.4)	16.9 (35.5)
은행	16.4 (21.6)	17.1 (22.0)	17.0 (21.6)	17.5 (21.7)	17.5 (21.0)	17.5 (20.6)
여신전문금융	6.1 (7.8)	6.5 (8.2)	6.7 (8.5)	7.1 (9.2)	7.5 (9.9)	7.9 (10.5)
보험	6.9 (7.3)	7.3 (7.8)	7.5 (7.9)	8.8 (9.4)	9.3 (10.0)	10.2 (10.9)
상호저축은행	10.2 (14.7)	9.1 (13.5)	7.9 (11.0)	8.4 (11.2)	9.1 (11.9)	10.4 (14.3)
신용협동기구	41.7 (42.5)	43.3 (44.2)	45.9 (46.8)	49.2 (50.3)	53.2 (54.4)	59.8 (61.3)
대부업	2.8 (5.8)	2.8 (5.6)	2.9 (5.5)	3.6 (6.7)	3.7 (7.1)	4.0 (8.0)

주: () 안은 차주당 신용대출 금액.
 자료: NICE평가정보.

업권별로 1건당 신용대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신용대출 잔액을 대출자 수로 나누어 정리한 내용을 〈표 7〉에 제시하였다. 여기서 1인당 신용대출을 가장 많이 공급하는 기관은 신용협동기구로서 2015년 기준으로 1건당 평균 6,000만 원 정도를 대출해 주고, 은행은 신용협동기구의 30% 수준인 1건당 평균 1,800만 원 정도를 대출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부업의 경우에는 1건당 400만 원 정도를 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신용등급별 대출금리

〈그림 5〉에서는 업권별·신용등급별 신용대출 금리가 제시되어 있다. 은행과 보험사의 경우 대부분의 신용등급에서 10% 이하의 금리를 제시하고 있어 본고에서 주목하는 15% 내외 수준을 목표로 하는 중금리 시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한편, 카드사의 경우에는 신용도가 좋은 1~3등급에 대해서는 12.6%,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통합비교공시(<http://finlife.fss.or.kr/>), 대부업체 금리는 2015년 김기식 의원 국정감사 자료에서 발췌.

〈그림 5〉 업권별·신용등급별 신용대출금리

그리고 4등급부터 금리가 증가하기 시작해서 한 등급이 하락할 때마다 대략 1.4~2.8%p 증가하여 7등급에 도달하여 20.7%까지 상승한 후 10등급까지는 그 수준에서 유지된다. 7등급 이후에 동일한 대출금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7~10등급에 대한 신용도의 차별을 고려하지 않고 이들 등급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단일금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카드사의 경우 1~3등급과 7~10등급에 대해 각 그룹 내 상이한 등급들을 하나의 유사한 시장으로 인식하여 단일금리를 제시하고 중신용등급인 4~6등급에서는 등급별로 차별되는 금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⁶⁾

캐피탈과 저축은행 역시 카드사의 경우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고신용등급과 저신용등급에 있어서 금리의 신용도별 차별성이 높지 않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또한 중신용등급인 4~7등급의 경우 20%를 상회하는 고금리를 책정하고 있는데, 특히 3등급과 4등급 간의 금리 차이가 캐피탈 및 저축은행이 각각 3.6%p, 2.9%p로 나타나고 있어 신용등급의 한 단계 하락에 따른 위험도의 증가가 이러한 금리차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한편, 대부업의 경우에는 신용등급의 고저와는 상관없이 모두 30%를 상회하는 고금리를 책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업이 신용등급별로 차별화된 가격으로 자

6) 익명의 검토자는 신용등급군 내 신용등급 간 동일한 가산금리의 적용에 따른 역선택 문제와 더불어 금융시장의 불완전 경쟁, 금융상품의 이질성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금 수요자를 취급하기보다는 동일한 신용수요자로 인식하고 있어 금리 차별성의 필요성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의문과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하기는 어려운데,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신용등급별 금리 자료를 구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 때문이다.⁷⁾ 따라서 중금리 시장의 활성화에 앞서 가장 기초적인 가격 정보의 공개를 통해 거래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출금리의 결정방식 중 현재 주종을 이루고 있는 스프레드 방식 하에서는 대출금리=기준금리+고객별 가산금리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가산금리⁸⁾가 차주의 신용도를 어느 정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비록 자료상의 차이는 작다고는 하나 신용등급 간 위험도가 상이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러한 위험에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은 사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사후적인 자료에서 나타난 결과만으로 금리 격차의 적절성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사전적인 리스크 프리미엄을 업권별·신용등급별로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연구자들이 입수 가능한 자료보다는 보다 상세한 미시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의 금리 차이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속단하기도 어렵다. 다만, 여기서는 사후적인 연체율 및 부도율을 감안하면 중신용등급을 중심으로 현행 수준의 금리를 다소 인하함으로써 중금리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과 신용의 불량도 관점에서 고신용등급과 중신용등급과의 차이는 중신용등급과 저신용등급과는 상이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중금리 시장의 도입은 기존 대출에 대한 부담 감소(internal margin)와 더불어 새로운 대출 수요를 창출하는 효과(external margin)가 있으므로 연체건수에 미치는 궁극적인 효과는 불확실하다. 만약 중금리 도입 이후 연체건수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경우 분모에 해당하는 전체 대출건수의 증가는 연체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연체율과 같은 양적인 지표 외에도 상위 금융기관의 중금리 시장 진입이 계속될 경우 저축은행 및 대부업 채무에서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불법 채권추심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오윤해(2014)에서는 고금리 대출 비중의 증가가 개인회생 신청자의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과 은행대출의 비중이 높을수록 개인회

7) 우리나라의 신용등급별 금리 자료는 NICE평가정보 또는 KCB를 통해서만 구할 수 있으나 이들 정보업체들은 신용정보법을 들어 자료의 외부 유출을 금지하고 있어 개별 연구자들은 금리 자료에 대한 접근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8) 금융기관별로 고객별 가산금리에는 차주의 신용도뿐만 아니라 수익 기여도나 만기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다.

생 채무조정의 성공확률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어, 금리 인하 및 금융기관 전환은 개인채무 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아래에서는 중금리 시장 도입에 따른 금리 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Ⅲ. 중금리 시장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1. 분석 자료

아래에서는 통계청에서 조사·발간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동 자료는 통계청이 2010년부터 발표하여 왔던 ‘가계금융조사’에서 복지 자료를 추가하여 확대·개편한 패널 자료로 가계의 재무구조에 관한 한 가장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2012년 이전과 이후의 자료는 표본 및 질문 항목 등의 차이로 인해 시계열상의 단층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에 국한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노동패널조사’와 같이 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서베이 자료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와 같은 스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반면,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차주의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 대한 정보는 존재하나 소득과 같은 유량 정보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에 반해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금융과 관련한 자산과 부채와 같은 스톡변수와 더불어 소득, 원리금상환액 등과 같은 플로우 정보도 제공한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동 자료는 응답자의 답변에 의존하는 서베이 자료이므로 응답자의 개인정보 노출 기피, 착오 및 누락, 불성실한 응답 등으로 답변의 신뢰성이 높지 않고 1년에 한 번만 조사되기 때문에 속보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분석에 앞서 응답의 정확성에 관한 일차적인 자료 검증이 필요하다. 비록 이러한 검증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도출된 결과가 통상적인 집계 자료나 다른 미시 자료의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또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가구주의 신용등급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민간 신용평가사의 경우 신용등급과 관련해서 상환이력 정보, 현재 부채수준, 신용거래 기간, 신용형태 정보 등이 평가등급 산정에 주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설명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들 정보가 어떻게 산출되어 신용평점을 도출하

는지에 대한 것은 내부 정보로 공개되지 않는다. 이에 본고에서는 평가요소 중 가장 높은 가중치를 가지고 있는 상환이력 정보와 연관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소득을 신용등급의 대용치로 사용해서 신용등급이 아닌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신용평점에 따른 차주의 분위가 소득으로 나타낸 가구의 분위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이들 사이에는 상당한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과 자료가 가지는 현실적인 한계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임을 감안하여 결과의 해석에 유념하기 바란다.

〈표 8〉은 분석에 사용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연도별 기초 통계량을 제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가구 수는 8,000가구 내외로, 표본가중치를 적용하면 이러한 표본은 거의 1,600만 가구에 해당하는 규모이다.⁹⁾ 평균적으로 3인으로 구성된 가구주의 평균 나이는 40대 후반 50대 초반이며 5,000만 원대의 경상소득을 보이고 있다.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45~49% 정도는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다. 경상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중은 110%를 웃돌고 있으며 이중 금융부채(가계부채에서 임대보증금 제외)의 비중이 80%를 상회한다. 한편, 경상소득 대비 신용대출 비율은 16~18%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원리금상환부담(DSR, 원리금상환액/경상소득)의 경우 2012년 21.5%에서 2015년 26.6%로 상승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본 조사에서는 ‘생계에 부담을 느끼는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이하 한계 DSR)이라는 설문 항목이 있는데, 응답자의 평균값이 5.7~6.5%로 나타나고 있어 실제 DSR과 한계 DSR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표 9〉에서는 한국은행, NICE평가정보 및 가계금융복지조사(표본가중치 적용)에서 조사된 가계대출 규모를 2015년 기준으로 비교·정리하였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말 전체 가계대출은 1,207조 원으로 보고된 반면, NICE평가정보에서는 1,248.5조 원으로 한국은행에 비해 41.5조 원 많은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NICE평가정보 자료에서는 한국은행 자료에 비해 은행과 신용협동조합에서의 대출 규모는 큰 반면 여신전문회사와 보험에서의 규모는 작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차이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 총대출은 731.3조 원으로 한국은행 자료에 비해 60.6%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은행과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두 자료 사이에 큰 차이가 없지만 나머지 업권에서는 차이가 뚜렷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 미시 자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

9) 통계청이 발표하는 2015년 우리나라 전체 추계 가구 수는 1,870만 5,004가구이다.

〈표 8 기초 통계량〉

	2012	2013	2014	2015
가구 수	8,377	7,864	7,573	7,750
(표본가중치 적용, 천 명)	15,189	15,656	15,925	16,353
가구주 나이	47.7	48.6	49.5	50.2
가구원 수	3.1	3.1	3.1	3.0
가구주 종사상 지위 ¹⁾	2.0	2.0	2.1	2.1
거주지(수도권=1, %)	37.6	36.8	35.9	36.2
입주 형태(자가주택=1, %)	56.1	57.1	58.6	60.4
다중채무 유무(보유=1, %)	14.9	20.6	20.3	18.8
경상소득(단위: 천 원)	47,480	49,612	50,762	51,858
금융부채 미보유 가구 수	2,823	2,687	2,743	3,022
금융부채 보유 가구 수	5,554	5,177	4,830	4,728
-담보대출 보유 가구 수	3,311	3,236	3,217	3,225
(담보대출 보유 비중)	(59.6)	(62.5)	(66.6)	(68.2)
-신용대출 보유 가구 수	2,537	2,529	2,344	2,192
(신용대출 보유 비중)	(45.7)	(48.9)	(48.5)	(46.4)
6개 업권 ¹⁾ 신용대출 보유 가구 수	1,855	2,280	2,107	1,990
(6개 업권 신용대출 보유 가구 비중)	(33.4)	(44.0)	(43.6)	(42.1)
기타 신용대출 보유 가구 수	370	390	357	306
(기타 신용대출 ²⁾ 보유 가구 비중)	(6.7)	(7.5)	(7.4)	(6.5)
금융대출 합계(단위: 10억 원)	314.0	330.0	321.0	348.4
-담보대출 합계	249.1	262.2	258.2	282.4
-신용대출 합계	57.2	60.9	57.1	58.9
(6개 업권 신용대출 합계)	42.2	50.7	47.2	49.0
경상소득 대비 부채 비율(%)	110.8	118.2	118.9	119.4
경상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76.7	81.1	82.0	84.0
경상소득 대비 담보대출 비율(%)	57.3	60.6	62.7	65.2
경상소득 대비 신용대출 비율(%)	17.1	18.5	17.7	16.7
DSR(이자+원금상환액/경상소득, %) ⁴⁾	21.5	23.7	26.6	26.6
생계에 부담을 느끼는 소득 대비 원리금 비율	6.5	5.7	5.7	6.3

주: 1) 1: 상용근로자, 2: 임시·일용근로자, 3: 자영업자, 4: 무직 등.

2) 은행, 신용협동기구, 보험,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 대부업.

3) 외상 후 할부 미상환액, 갯잔 후 불입금액을 포함.

4) 금융부채 보유 가구.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2015.

〈표 9〉 자료별 가계대출 비교: 2015년 기준

(단위: 조 원, %)

자료	구분	전체						
			은행	여신전문 회사	보험	저축 은행	신협	기타
한국은행	총대출	1,207.0	563.7	113.4	98.8	13.7	182.1	235.2
	비중	[100.0]	[46.7]	[9.4]	[8.2]	[1.1]	[15.1]	[19.5]
NICE 평가정보	총대출	1,248.5	731.9	74.0	49.9	17.7	324.8	50.2
	비중	[100.0]	[58.6]	[5.9]	[4.0]	[1.4]	[26.0]	[4.0]
	신용대출 비중	(44.9)	(34.0)	(96.3)	(21.7)	(92.7)	(57.8)	(51.5)
가계금융 복지조사	총대출	731.3	532.9	18.8	33.0	9.2	96.6	40.8
	비중	[100.0]	[72.9]	[2.6]	[4.5]	[1.3]	[13.2]	[5.6]
	신용대출 비중	(17.1)	(12.9)	(62.9)	(7.2)	(41.0)	(15.4)	(57.1)

자료: 한국은행 ECOS, NICE평가정보, 가계금융복지조사.

하는 표본오차이므로 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 이에 주의해야 한다.

2. 중금리 시장 도입에 따른 시나리오별 DSR 변화

여기서는 중금리 시장 도입에 따라 고·중 소득분위자들이 중금리로 대출이 가능할 경우 DSR의 변화량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소득 1~3분위자들을 제외한 이유는, 이들 계층은 아무래도 중금리 시장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물론 중금리 도입으로 전체적인 금리가 하락할 경우, 이들 계층 역시 간접적인 금리 하락의 혜택을 입을 것이나 이들 계층에 적용되는 금리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단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분석에서 제외된 현실적인 이유이다. 중금리 시장에서의 목표금리 구간이 10~15%인 점을 감안해서 아래 분석에서는 2015년 자료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분위별 DSR 변화를 추정하였다. 어떤 특정한 소득분위에 속하는 가구가 여러 업권별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경우 해당 소득분위를 신용등급으로 인식하여 〈그림 5〉에서 구한 업권별·신용등급별 평균금리와 목표금리(여기서는 15%와 10%)와의 차이만큼 금리 부담이 줄어든다고 보고 DSR의 변화를 계산하였다. 다음 〈표 10〉에서는 고·중 소득분위의 DSR 변화량의 분위별 평균값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소득 4분위의 경우 15% 중금리가 적용되면 평균적으로 0.68%p

〈표 10〉 중금리 적용시 소득분위별 평균 DSR 변화

(단위: %, %p)

소득 분위	DSR baseline	15% 금리로 대출 가능할 때		10% 금리로 대출 가능할 때	
			변화량		변화량
4	28.6	27.9	-0.682	27.5	-1.100
5	29.4	28.8	-0.565	28.4	-0.989
6	27.2	26.8	-0.327	26.5	-0.636
7	23.5	23.2	-0.366	23.0	-0.595
8	25.5	25.5	-0.016	25.3	-0.160
9	25.2	24.9	-0.343	24.7	-0.539
10	23.9	23.8	-0.094	23.7	-0.199

주: 중금리 시장에는 소득 4~10분위 가구만 참여 가능한 것으로 가정.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5년).

의 DSR의 감소를, 10% 중금리가 적용되면 1.1%p의 DSR의 감소를 향유하게 된다. 모든 소득분위의 DSR 변화량 평균을 보면 적용금리가 15%에서는 0.34%p, 10%에서는 0.6%p의 DSR 감소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도·임진(2013)에서는 통상 DSR 비율이 40%를 초과하는 가구는 금융권으로부터 신용제약이 강화되고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가계 부채 고위험군, 즉 ‘잠재적 위험가구’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본고에서도 이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잠재적 위험가구를 분류하고 중금리 시장 도입에 따른 소득분위별 잠재적 위험가구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11〉에 정리하였다. 여기서도 〈표 10〉과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소득분위에 속하는 가구가 여러 업권별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경우, 해당 소득분위를 신용등급으로 인식하여 〈그림 5〉에서 구한 업권별·신용등급별 평균 금리와 목표금리(여기서는 15%와 10%)와의 차이만큼 금리 부담이 줄어든다고 보고, 잠재적 한계가구 비율의 변화를 계산하였다. 예를 들어, 소득 5분위의 경우 평균금리가 15%로 인하될 경우 잠재적 위험가구 비중이 1.0%p 하락하고, 10%로 인하될 경우 동 비중은 1.1%p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소득분위의 잠재적 한계가구 비중 변화의 평균을 보면 적용금리가 15%에서는 0.41%p, 10%에서는 0.59%p의 비중 감소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1〉 중금리 적용시 잠재적 위험가구¹⁾ 비율 변화

(단위: %, %p)

소득 분위	잠재적 한계가구 비중	15% 금리로 대출 가능할 때		10% 금리로 대출 가능할 때	
			변화량		변화량
4	29.9	29.5	-0.4	28.9	-0.9
5	27.2	26.2	-1.0	26.0	-1.1
6	28.5	28.4	-0.1	28.1	-0.5
7	27.5	27.0	-0.6	27.0	-0.6
8	25.4	25.4	-0.0	25.3	-0.1
9	26.3	25.9	-0.4	25.9	-0.4
10	24.0	23.6	-0.4	23.5	-0.5

주: 1) DSR>40%인 가구.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5년).

3. 회귀모형을 통한 DSR 분석

중금리 도입에 따른 한계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피설명변수를 DSR로 한 통합 회귀모형(pooled regression), 랜덤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 및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을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2〉에 제시하였다. 가구주 연령, 입주 형태 등의 경우 회귀모형의 선택에 따라 계수의 부호가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 개체의 이질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F검정을 수행한 결과 F 값은 1.30(p -value=0.000)으로 나타나 귀무가설이 기각되었으며, 패널모형 선정과 관련해서는 Hausman 검정 결과 고정효과모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효과모형에서 시간고정 효과를 고려한 경우와 고려하지 않은 경우 중에서는 모두 적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시간고정 효과를 고려한 모형을 기준으로 아래에서는 설명하고자 한다. 경상소득의 증가는 1%의 통계적 유의성 하에서 DSR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는 1,000만 원의 경상소득 증가는 DSR을 1.9%p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다. 입주 형태의 경우 무주택자는 자가 보유자에 비해 2.9%p가 높은 수준의 DSR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은 분석되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금융부채 대비 신용대출 비율이 높을수록 DSR이 하락한다는 점이다. 이는 금융부채의 대부분이 담보대출로 이루어져 있어 신용대출보다는 담보대출의 규모가 DSR을 결정하는데 더 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결과로 이

〈표 12〉 회귀분석 결과¹⁾

피설명변수: DSR	(1)	(2)	(3)	(4)	(5)
	Pooled	Random Effect	Fixed Effect	Random Effect	Fixed Effect
가구주 연령/100	-0.371	-0.334	1.346	-0.290	0.554
(가구주 연령/100) ²	0.406	0.370	-0.394	0.312	-0.705
가구주 성별(남성=1)	-0.020**	-0.020*	-0.010	-0.019*	0.006
가구주 직업(일용직=1)	0.006	0.006	0.013	0.007	0.022
가구주 직업(자영업=1)	0.068***	0.068***	0.056**	0.070***	0.059**
가구주 직업(기타=1)	0.088***	0.088***	0.049*	0.088***	0.054**
경상소득(천만 원)	-0.007***	-0.007***	-0.017***	-0.007***	-0.019***
거주지(수도권=1)	0.022***	0.021***	0.001	0.022***	-0.011
입주 형태(자가주택=1)	0.031***	0.031***	0.013	0.030***	-0.029
다중채무 유무	0.112***	0.109***	0.024*	0.109***	0.022
실효금리 ²⁾	0.937***	0.943***	1.061***	0.940***	1.037***
금융부채 대비 신용대출	-0.060***	-0.060***	-0.034*	-0.059***	-0.031*
저축은행 담보대출 유무	0.067**	0.062*	-0.072*	0.061*	0.070
신협 담보대출 유무	0.060***	0.059***	0.000	0.059***	-0.000
보험사 담보대출 유무	-0.033**	-0.032**	-0.002	-0.034**	-0.008
대부업 담보대출 유무	-0.068	-0.070	-0.095	-0.068	-0.077
기타 담보대출 유무	0.034	0.034	0.052	0.027	0.037
저축은행 신용대출 유무	-0.030	-0.030	-0.056	-0.032	-0.057
신협 신용대출 유무	-0.002	-0.000	0.025	-0.001	0.025
보험사 신용대출 유무	-0.010	-0.009	0.014	-0.011	0.007
대부업 신용대출 유무	0.043	0.045	0.116*	0.046	0.121*
기타 신용대출 유무	0.036***	0.037***	0.055***	0.030**	0.040**
절편	0.248***	0.239***	-0.280	0.216***	0.140
연도 더미	X	X	X	O	O
관측치수	20,286	20,286	20,286	20,286	20,286
Adj.R ²	0.046	0.023	0.033	0.026	0.037
F-statistic (p-value)	1.30 (0.000)				
Hausman test (p-value)		193.24 (0.000)		246.31 (0.000)	

주: 1) ***는 p-value < 0.01, **는 p-value < 0.05, *는 p-value < 0.1을 의미함.

2) 총부채 대비 이자상환액.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해된다.

분석 결과 실효금리의 1%p 상승은 DSR을 1.037%p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진다. 여기서 실효금리는 금융부채 이자지급액을 금융부채 잔액으로 나눈 것으로 이자지급액에는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지급액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중금리 시장이 신용대출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신용대출에 국한해서 실효금리를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전체 이자지급액에 관한 정보만 제공될 뿐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구분해서 이자지급액을 산정해서 보고하지 않고 있어 전체 이자지급액을 이용한 실효금리의 효과를 살펴보는 수밖에 없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1% 실효금리 인하로 인한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 감소는 경상소득이 547만 원 증가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여러 업권별로 나누어서 해당 기관에 신용이나 담보 대출 여부가 DSR의 결정요인이 되는지를 검정해 본 결과 대부분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여러 기관에 중복해서 대출을 받는 다중채무 여부도 DSR의 결정요인으로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소득분위별 실효금리의 회귀계수¹⁾

피설명변수: DSR 소득분위	(1)	(2)	(3)	(4)	(5)
	Pooled	Random Effect	Fixed Effect	Random Effect	Fixed Effect
1분위	1.972***	2.024***	2.351***	1.991***	2.310***
2분위	0.885***	0.889***	1.246***	0.891***	1.246***
3분위	0.853***	0.949***	1.190***	0.940***	1.196***
4분위	1.029***	1.021***	0.766***	1.013***	0.755***
5분위	1.338***	1.361***	1.411***	1.358***	1.369***
6분위	1.073***	1.184***	1.846***	1.166***	1.823***
7분위	0.985***	0.985***	1.284***	0.997***	1.288***
8분위	0.558***	0.551***	0.333**	0.548***	0.316**
9분위	0.855***	0.817***	0.512***	0.808***	0.494***
10분위	0.608***	0.608***	0.401**	0.610***	0.396*
연도 더미	X	X	X	O	O

주: 1) ***는 p -value < 0.01, **는 p -value < 0.05, *는 p -value < 0.1을 의미함.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한편, 소득구간별로 실효금리가 DSR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기 위해 소득을 10분위로 구분한 후 분위별로 회귀분석을 수행한 후 실효금리 계수를 정리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이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DSR이 실효금리에 반응하는 민감도는 더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시간효과를 감안한 고정패널 분석의 결과를 보면, 1분위의 실효금리 계수값은 2.310인 반면 최상위 소득등급인 10분위의 경우 0.396으로 1분위의 17% 수준에 불과하다. 소득분위별 실효금리의 민감도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위에서 실효금리는 DSR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를 가지고 있어 ‘복지조사’를 통한 분석의 결과 역시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함을 알 수 있다.

4. 로짓모형을 이용한 연체율 분석

중금리 시장의 도입이 연체율로 측정된 가구의 신용불량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연체 여부를 피설명변수로 두고 로짓모형을 추정한 후 각 계수값의 한계확률 효과(marginal probability effect)를 추정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14>에 정리하였다.¹⁰⁾ 회귀분석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통합로짓모형, 확률효과 로짓모형, 고정효과 로짓모형을 각각 추정한 후 가장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그 결과 회귀분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도 더미를 포함한 고정효과 로짓모형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선정되었다. 동 모형의 추정 결과를 보면 경상소득이 1,000만 원 증가할 경우 연체가 발생할 확률은 1.3%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중채무의 유무는 다중채무가 있을 경우 없는 경우에 비해 연체 확률이 10.6%p 상승하고, 대부업체에 신용대출이 있을 경우 연체율은 32.1%p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금리 시장과 관련해 특히 관심을 가지는 설명변수는 실효금리인데, 동 금리의 1%p 상승은 연체율을 0.165%p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간 더미를 감안한 고정효과 로짓모형에서는 이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10% 수준에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확률효과 로짓모형 하에서는 실효금리의 1%p 상승이 연체율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0.08%p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금리가 연체율에 미치는 효과는 고정효과 로짓모형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분석 결과에 따르면 1%p 실효금리 인하로 인한 가계의 연체 확률 감소는 경상소득이 127만 원 증가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 로짓모형의 계수 추정 결과는 <부표>에 수록하였다.

〈표 14〉 로짓모형 한계확률 효과(Marginal Probability Effect)

피설명변수: 연체 여부 (연체=1)	(1)	(2)	(3)	(4)	(5)
	Pooled	Random Effect	Fixed Effect	Random Effect	Fixed Effect
가구주 연령/100	1.922***	1.494***	0.953	1.477***	0.822
(가구주 연령/100) ²	-2.130***	-1.665***	-2.233	-1.639***	-1.592
가구주 성별(남성=1)	0.007	0.001	0.017	0.000	0.016
가구주 직업(일용직=1)	0.088***	0.067***	0.061	0.066***	0.056
가구주 직업(자영업=1)	0.063***	0.053***	0.094**	0.052***	0.091**
가구주 직업(기타=1)	0.076***	0.057***	0.081*	0.057***	0.078*
경상소득(천만 원)	-0.012***	-0.008***	-0.014***	-0.008***	-0.013**
거주지(수도권=1)	0.005	0.002	-0.126	0.002	-0.133
입주 형태(자가주택=1)	-0.044***	-0.036***	0.010	-0.036***	0.017
다중채무 유무	0.071***	0.050***	0.104***	0.050***	0.106***
실효금리	0.085***	0.080***	0.152	0.082***	0.165
금융부채 대비 신용대출	0.060***	0.044***	0.036	0.044***	0.035
저축은행 담보대출 유무	0.037*	0.017	-0.020	0.017	-0.019
신협 담보대출 유무	0.053***	0.041***	0.052	0.041***	0.055
보험사 담보대출 유무	0.010	0.002	-0.069*	0.003	-0.064
대부업 담보대출 유무	0.244***	0.177***	0.282**	0.176***	0.280*
기타 담보대출 유무	-0.010	-0.025	-0.134**	-0.022	-0.137**
저축은행 신용대출 유무	0.011	0.004	-0.029	0.003	-0.042
신협 신용대출 유무	0.015	0.011	0.020	0.011	0.023
보험사 신용대출 유무	0.009	0.007	0.013	0.008	0.020
대부업 신용대출 유무	0.158***	0.130***	0.337***	0.129***	0.321**
기타 신용대출 유무	0.075***	0.052***	0.097***	0.053***	0.080**
연도 더미	X	X	X	O	O
관측치수	20,289	20,289	5,818	20,289	5,818
Log likelihood	-8,777.008	-8,319.672	-2,092.970	-8,311.859	-2,082.266
F-statistic (p-value)	918.93 (0.000)				
Hausman test (p-value)			247.94 (0.000)		251.37 (0.000)

주: ***는 p-value < 0.01, **는 p-value < 0.05, *는 p-value < 0.1을 의미함.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한편, 회귀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득구간별로 실효금리가 연체 여부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기 위해 소득을 10분위로 구분한 후 해당 분위별로 각각 로짓모형을 추정하고 실효금리의 한계확률 효과를 정리한 결과를 <표 15>에 제시하였다.¹¹⁾ 연체 여부에 대한 한계확률 효과는 아주 낮은 소득분위나 높은 소득분위의 경우 음(-)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두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소득 7, 8분위의 경우에는 통합 및 확률효과모형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가지는 양(+)의 효과를 가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금리 인하가 연체에 미치는 효과는 아주 소득이 낮거나 높은 그룹보다는 중간 또는 중상위 소득분위에 있는 계층에 미치는 효과가 더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15> 소득분위별 실효금리의 한계확률 효과¹⁾

피설명변수: 연체 여부 (연체=1) 소득분위	(1)	(2)	(3)	(4)	(5)
	Pooled	Random Effect	Fixed Effect	Random Effect	Fixed Effect
1분위	-0.413	-0.359	-	-0.393	-
2분위	-0.076	-0.068	0.000	-0.065	-0.003
3분위	0.165	0.185	0.000	0.216	0.000
4분위	0.120	0.088	0.000	0.082	-
5분위	0.181*	0.182*	0.002	0.181*	-
6분위	0.162	0.125	0.002	0.129	-
7분위	0.223**	0.193**	0.007	0.188**	-
8분위	0.214***	0.130***	-	0.130***	-
9분위	0.104	0.053	-0.008	0.055	0.000
10분위	-0.014	-0.019	-0.001	-0.018	-
연도 더미	X	X	X	O	O

주: 1) ***는 p -value < 0.01, **는 p -value < 0.05, *는 p -value < 0.1을 의미함. 한편, 고정효과모형 추정에서 일부 소득분위의 경우 최우추정량이 수렴하지 않아 추정치를 도출할 수 없었음.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11)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한 최우추정에서 일부 소득분위의 경우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로 해당 분위의 한계확률 효과는 제외하였다.

IV. 결론

금융의 핵심 기능은 자금공급자로부터 자금수요자에게 잉여자금을 매개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실물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금융의 기능은 고신용자에 대한 저금리 담보대출과 중·저 신용자에 대한 고금리 신용대출로 양분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신용도는 높으나 담보가 충분하지 못한 중신용자에 대해 과도한 금리가 책정됨에 따라 금리 결정의 적절성, 투명성 및 자원배분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중신용 계층의 저변이 넓은데도 은행들이 이들을 대상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이들 계층에 대한 신용평가 시스템의 부재에 기인한 바가 크다. 다양한 고객들의 신용을 분석할 수 있는 평가 및 심사 시스템만 갖출 수 있다면 중금리에 대한 신용 수요를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신용공급 역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활동 중인 P2P 대출, 크라우드펀딩 등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매우 유용한 banking 모델이 될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여신 및 대출, 투자자금 모집, 지급결제, 자산관리,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신용평가 시스템 구축과 이를 통한 대출 서비스 진행 등은 담보 및 지점 영업 위주의 전통적인 은행보다는 경쟁력과 효율성 측면에서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 예비인가를 마치고 본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본격화될 경우, 인터넷뱅킹 서비스의 확대와 비용효율화¹²⁾ 및 서비스 차별화 등 공급경로의 다양화를 통한 경쟁 및 혁신으로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이러한 신규 진입자들의 혁신과 더불어 기존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중금리 시장 진출은 중·저신용 금융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을 통해 고객 서비스의 품질 향상, 다양한 대출상품 제공, 대출금리 하락 등의 긍정적 효과를 유발함으로써 중금리 시장의 안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에서는 중금리 시장의 형성이 여신시장의 공백을 보완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완전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NICE평가정보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중금리 시장의 현황을 분석한 뒤, 이의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12) Sato and Hawkins(2001)에서 미국 은행들의 창구거래 비용을 건당 100으로 표준화하였을 경우 인터넷뱅킹 비용은 건당 1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DSR 및 연체율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중금리 시장 활성화가 원리금상환부담 및 연체율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은 선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이러한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해 보았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가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중금리 시장의 도입은 서민 및 저신용 계층에 대한 금융배제(financial exclusion)와 더불어 문제시되어 오던 중신용 계층에 대한 금융공백(financial vacuum)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으며, 다양한 만기와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형성됨으로써 금리의 가격신호 및 자원배분 기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RP 시장의 활성화로 만기별 시장금리는 개선된 측면이 있으나 신용도별 시장금리는 저금리의 고신용등급과 나머지 등급에 대한 고금리로 양분되어 있어서 신용에 대한 금리의 가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통화정책의 관점에서도 중금리 시장의 도입으로 정책금리의 조정이 만기 및 신용도에 따른 시장금리의 변화로 이어져 다양한 실물부분으로 파급됨으로써 금리 채널의 유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50 중금리 시장의 도입이 가계의 상환부담 및 연체율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분석

〈부표〉 로짓모형 계수 추정 결과

피설명변수: 연체 여부 (연체=1)	(1)	(2)	(3)	(4)	(5)
	Pooled	Random Effect	Fixed Effect	Random Effect	Fixed Effect
가구주 연령/100	14.468***	18.737***	3.834	18.587***	3.334
(가구주 연령/100) ²	-16.036***	-20.887***	-8.983	-20.625***	-6.457
가구주 성별(남성=1)	0.052	0.010	0.068	0.006	0.065
가구주 직업(일용직=1)	0.659***	0.836***	0.244*	0.829***	0.229
가구주 직업(자영업=1)	0.475***	0.665***	0.379**	0.659***	0.370**
가구주 직업(기타=1)	0.573***	0.717***	0.326**	0.717***	0.316*
경상소득(천만 원)	-0.093***	-0.105***	-0.058***	-0.103***	-0.053***
거주지(수도권=1)	0.036	0.027	-0.507	0.025	-0.539
입주 형태(자가주택=1)	-0.331***	-0.451***	0.039	-0.450***	0.069
다중채무 유무	0.535***	0.632***	0.420***	0.634***	0.430***
실효금리	0.636***	1.001***	0.611	1.033***	0.668
금융부채 대비 신용대출	0.453***	0.554***	0.144	0.551***	0.140
저축은행 담보대출 더미	0.279*	0.210	0.078	0.216	-0.077
신협 담보대출 유무	0.396***	0.518***	0.210*	0.522***	0.222*
보험사 담보대출 유무	0.077	0.024	-0.277*	0.033	-0.261*
대부업 담보대출 유무	1.839***	2.223***	1.135**	2.218***	1.134**
기타 담보대출 유무	-0.074	-0.309	-0.539**	-0.282	-0.556**
저축은행 신용대출 유무	0.084	0.046	-0.118	0.042	-0.170
신협 신용대출 유무	0.110	0.136	0.082	0.139	0.092
보험사 신용대출 유무	0.069	0.082	0.052	0.097	0.079
대부업 신용대출 유무	1.192***	1.630***	1.356***	1.618***	1.302***
기타 신용대출 유무	0.566***	0.657***	0.389***	0.672***	0.325***
절편	-4.820***	-6.377***	-	-6.333***	-
연도 더미	X	X	X	O	O
관측치 수	20,289	20,289	5,818	20,289	5,818
Log likelihood	-8,777.008	-8,319.672	-2,092.970	-8,311.859	-2,082.266
F-statistic (p-value)	918.93 (0.000)				
Hausman test (p-value)		247.94 (0.000)		251.37 (0.000)	

주: 1) ***는 p-value < 0.01, **는 p-value < 0.05, *는 p-value < 0.1을 의미함.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참 고 문 헌

- 구자현, “은행의 보수적 금융형태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개발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2014-06, 2014.
- 권영준·남재현·조민정, “개인신용평가에서의 비금융정보의 경제적 효과,” 『한국경제연구』 제29권 제2호, 2011, 81~107.
- 김영도·임진, “주택가격 하락 등 충격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 2012년 가계 금융·복지조사 자료 기반,” 한국금융연구원 금융 VIP 시리즈 2013-03, 2013.
- 김우영·김현정·김기호, “한국의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 가계부채 분석,” 『금융경제연구』 제366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2009.
- 배영목, “가계부채의 소득분위별 분포와 특성,” 『사회과학연구』 32(2), 2015, 75~99.
- 안세룡,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 등장 시 시사점,” 『HF 이슈 리포트』 2015-11, 2015.
- 오윤해, “개인채무조정제도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KDI 정책연구시리즈 2014-09, 2014.
- 이수진, “금리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구축 규모의 추정 및 시사점,” 『주간금융브리프』 제25권 제9호, 2016, 3~9.
- 조훈·강정미, “소액 대출시장 금리 결정 요인 및 시장 왜곡 가능성에 대한 연구,” 한국은행 용역보고서, 2013.
- 주강진·이민화·양희진·류두진, “핀테크 산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증권학회지』 45(1), 2016, 145~170.
- Deyoung, Robert, “The Performance of Internet-Based Business Models: Evidence from the Banking Industry,” *Journal of Business*, 78(3), 2005, 893~947.
- Sato, Setsuya and John Hawkins, “Electronic Finance: An Overview of the Issues,” BIS Papers Chapter from ‘*Electronic Finance: A New Perspective and Challenges*’, 7, 2001, 1~12.
- Sullivan, Richard and Zhu Wang, “Internet Banking: An Exploration in Technology Diffusion and Impact,” FRB Kansas City, Working Paper 2013-05, 2013.

[Abstract]

Assessing the Effects of Promoting Middle Credit Loans on Households' Debt Repayment and Delinquency Likelihood

Joonhyuk Song*

This paper discusses the current trends in the middle credit loan markets and investigates the expected outcomes of promoting these markets in terms of debt service ratios(DSR) and delinquencies, anticipating that stimulating the dormant markets will bridge the gap in the credit markets by raising the degree of completeness of financial markets.

The current outstanding (unsecured) credit as of 2015 stands at 560.9 trillion won, growing at 6.2% per annum as opposed to 7.4% in the total household credit which includes both collateral and the pure credit loans. Dividing the data by credit ratings, while the outstanding credits for top 1~4 deciles have increased, those for the middle and low credit households have decreased at the face of the overall credit expansion. Also, the credit spread between the top and the middle ratings has spiked at the margin, while a 2%p spread between each pair of adjacent credit grades is persistently observed in the data.

Based on the result from empirical results, we show that an increase in nominal income lowers DSR and delinquency probabilities, while debt obligations from multiple lenders increase the probability of delinquencies. A 1%p decrease in the effective rate is equivalent to increases in the nominal income by 5.5 million won in terms of the DSR and 1.3 million won in terms of delinquency probability.

Keywords: middle credit loan, debt service ratio, debt delinquency, household credit, credit ratings

JEL Classification: G21, G23, G24

* Associate Profess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el: +82-2-2173-3107, E-mail: jhsong@hufs.ac.kr